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10월



목 차

1. 스페셜 이슈	3
2. 해외시장 동향	13
3. 국내시장 동향	21



1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스페셜 이슈



1. Conference News: MICE 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 Conference News

- 컨퍼런스뉴스(Conference News)는 영국의 MICE 산업 전문 뉴스 통신사로, 2003년 처음 창간된 이래로 영국의 전시·컨벤션, 비즈니스이벤트 산업 관련 기사를 다루는 한편 배뉴, 기업, MICE 관련 서비스 공급자 등 업계 내 주요 이해관계자 및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케팅 및 지원 서비스를 다수 제공해왔음
- 특히 컨퍼런스뉴스는 업계 내에서의 중심적인 입지를 바탕으로 영국 MICE 업계 내에서 연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업체를 시상하는 ‘CN Agency Awards’, 업계 내 30세 이하의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한 공모전 ‘CN 30underThirty’, 영국 MICE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인 ‘CN Sustainability Summit’, MICE 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접목을 위한 회의인 ‘The Global Event Tech Summit’, 업계 인사이트 공유 및 네트워킹의 장인 ‘CN Roundtables’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영국 MICE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1) MICE 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Shaping a Sustainable Future)¹⁾

- 컨퍼런스뉴스는 2022년 초 ‘지속가능한 이벤트: 미래환경 조성에 대한 당신의 역할 (Sustainable Events: Play your part in shaping the future)’이라는 주제로 트위터 (Twitter) 및 링크드인 (LinkedIn) 등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들을 기반으로 MICE 산업 전문가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지속가능성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방식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음
- 한편 도시재생 및 리모델링을 통해 140여 년 전 지어진 맨체스터 중앙역 역사 및 부지를 컨벤션센터로 탈바꿈하여 운영 중인 맨체스터 센트럴 (Manchester Central)이 컨퍼런스뉴스의 이번 보고서 작업 전 과정에서 협업 형태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150여 명의 업계 전문가를 유치하거나 라운드테이블 진행에 관여하는 등 연구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1) 본고는 ‘Shaping a Sustainable Future’(Conferencenews, Manchester Central, 2022)를 참고 및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2) 주요내용 요약

- 컨퍼런스뉴스의 MICE 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MICE 업계에서 왜 지금 현재부터 미리 지속가능성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에서부터 시작해 업계의 지속가능성 조치 현황, 비용, 유통 및 조달 관련 지속가능성 조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강화 교육, 내부 지속가능성 강화 등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1> 주요 설문 결과

연번	주제	주요 내용
1	지속가능성 강화 추진 인식	응답자의 96%는 지속가능성이 근시일 내에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응답 응답자의 94%는 지속가능성이 향후 의사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
2	업계의 현황은?	응답자 중 26%만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서약서에 서명하였음 응답자 중 51%는 MICE 업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
3	비용에 대한 인식	응답자 중 42%는 지속가능성 강화 조치 실시를 위해 대규모의 비용이 든다고 인식 응답자 중 47%는 소속기관/기업이 지속가능성 강화 조치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함
4	지속가능성 교육 현황	응답한 조직들 중 36%만이 임직원에게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응답한 조직들 중 54%는 지속가능성 및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5	유통 및 조달 관련 현황	응답한 조직들 중 지속가능성이 유통 및 조달 과정의 우선순위인 조직은 40%에 불과 특히 협력 및 협업 추진 시 상대 조직의 친환경 인증을 고려하는 조직은 17%뿐
6	내부 규정 관련 현황	응답한 조직들 중 지속가능성 관련 내부 규정을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조직은 61% 응답한 조직들 중 사내 폐기물 처리 규정 및 지침을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조직은 55%

- 한편 이러한 설문 및 업계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 지속가능성 전문가들과의 자문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임원진의 역할,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미래를 위한 투자,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시

<표 2> 주요 인사이트 및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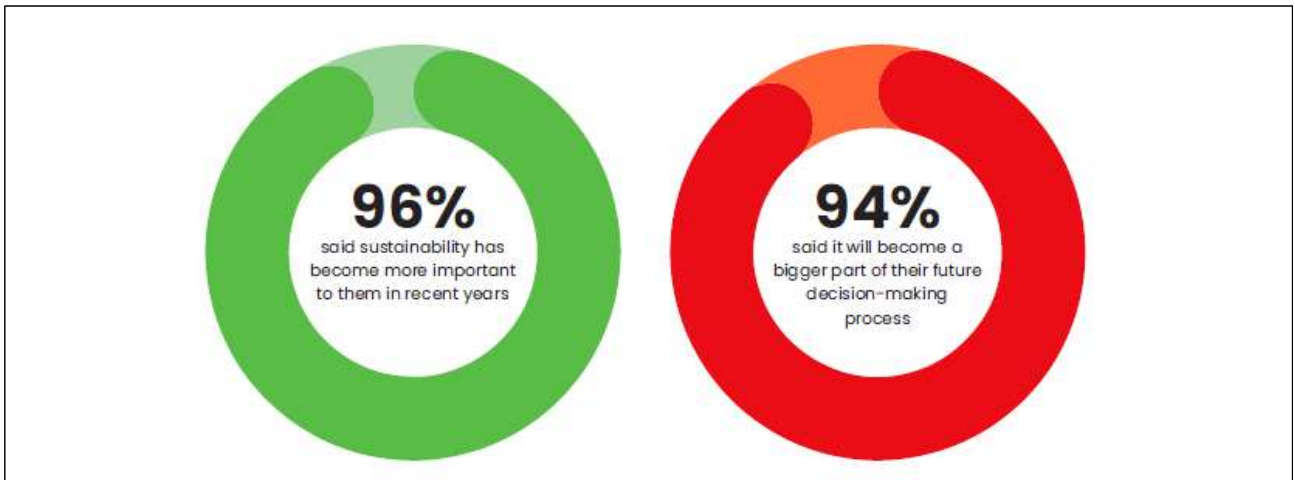
연번	주제	주요 내용
1	의사 결정 기준 강화	사내 지속가능성 전문가 영입, 탄소저감 서약 실시, 친환경 조달 업체 선정, 사내 지속가능성 및 폐기물관리 제도 수립, 업계 내 지속가능성 강화 기조 유도 등
2	교육 강화	지속가능성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기업과 기업 간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벤치마킹, 각 MICE 업종별 상호보완적 협업 추진 등
3	미래를 위한 투자	지속가능성 강화 활동을 위한 예산 할당, 지속가능성 옵션 개발 및 선제조치, 부패 식단 축소 및 식물성 식단 확대, 전사업계 폐기물 감축 인센티브, 지속가능한 메뉴 선택 등
4	성과관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조달(친환경 물품구매) 정책 수립, 공급망 구축 시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인증 확인 강화, 주기적 지속가능성/친환경 성과 확인 및 관리 등

나. 주제별 설문 결과

1) 지속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

■ 지속가능성 강화 추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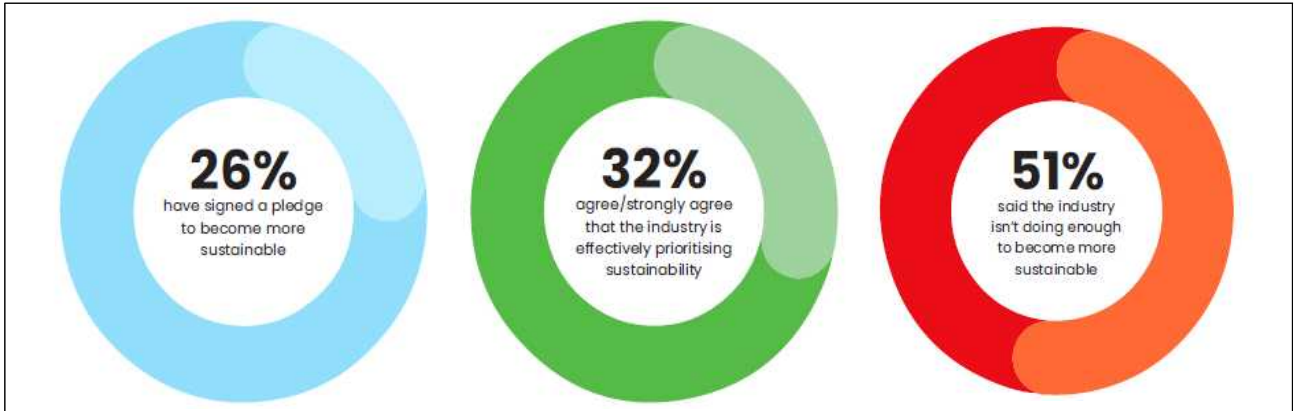
- 최근 MICE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는 매우 광범위하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들로 인해 150명의 응답자 중 약 96%에 달하는 인원이 ‘지속가능성이 그들의 조직 및 사업에 대하여 근시일 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4%의 응답자들은 ‘미래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1] 지속가능성 관련 업계 종사자 인식조사 결과

■ 난향을 겪는 MICE 산업 지속가능성 강화

- 현재 기준으로 MICE 업계의 응답자들 중 약 26%는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지속가능성 강화 선서에 서명한 상태이나, 나머지 74%는 아직 지속가능성 강화 조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업계 내에서 지속가능성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MICE 업계는 지속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약 51%의 응답자들은 ‘MICE 업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지속가능성 추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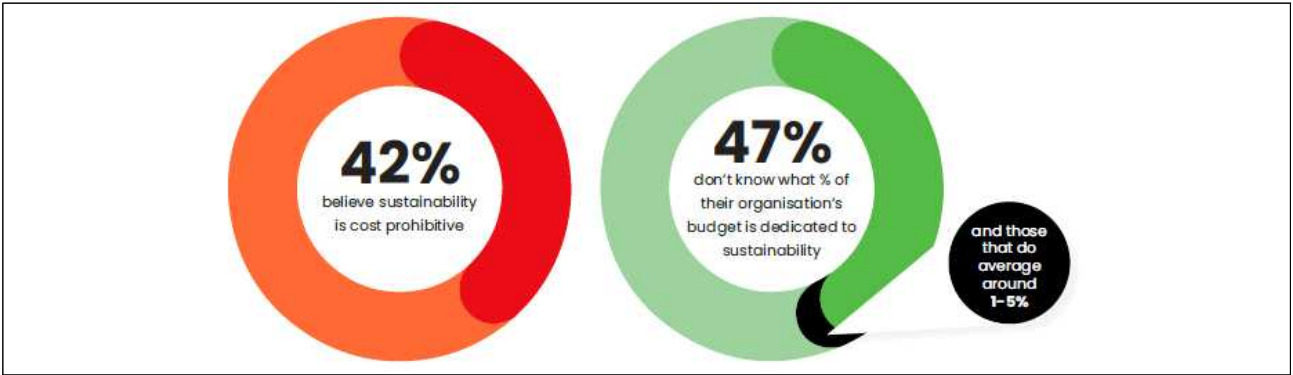
[그림 2] MICE 업계의 지속가능성 강화 조치 현황

- 실제로 영국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약 400억 파운드(한화 약 6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다방면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MICE 업계가 지속가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바로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됨
- 실제로 응답자들 중 일부는 약 2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영국 및 유럽의 MICE 업계가 매우 큰 타격을 입었으며, 실적을 만회하고 사업체 운영 현황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로 떠올랐고 지속가능성 강화는 2차적으로나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MICE 업계가 탄소 및 각종 오염물 배출 감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점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지속가능성 강화 추진 요인별 현황

■ 지속가능성 관련 예산 운영 현황

- 조사 결과 지속가능성 강화 추진에 있어 가장 강력한 진입장벽은 비용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설문 응답자 중 42%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자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속가능성 강화 조치에는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Cost-prohibitive)’이라고 인식함
- 또한 응답자들 중 절반 가량인 47%의 응답자들은 본인이 속한 조직이 지속가능성 강화 조치를 위해 예산의 몇%를 투입하고 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조직의 지속가능성 강화 예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아는 이들은 대체로 조직이 1-5%의 예산을 지속가능성 조치에 할애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3] MICE 업계의 지속가능성 강화 예산 관련 조사 결과

- 그러나 지속가능성 전문가 및 컨설턴트들은 현재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지금 당장 약간의 추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응답자들이 ‘근시일 내에 지속가능성 강화는 업계 내에서 필수요소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문에 응답한 것을 보면 향후 지속가능성 요소를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으며, 오히려 미래 시점에서 급하게 준비하기보다 현재부터 차근차근 지속가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손실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였음

■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훈련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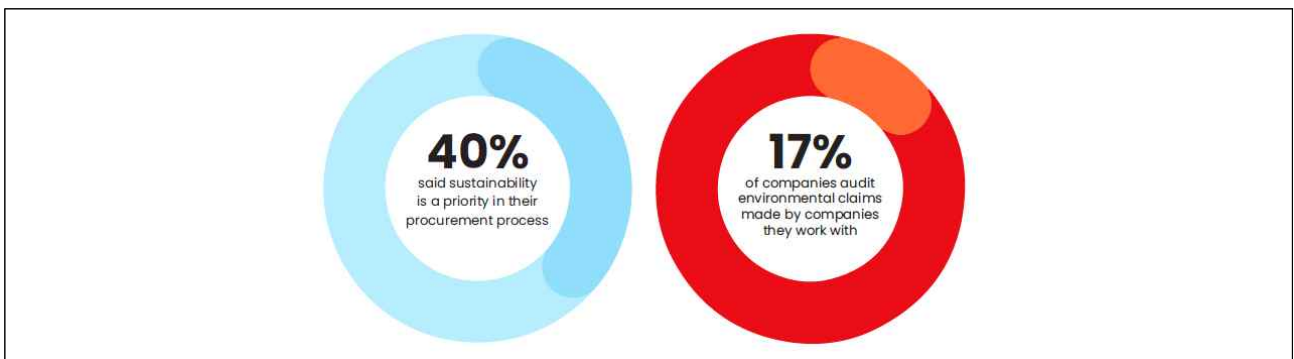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 강화 추진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교육훈련의 부재로 조사되었는데, 전체 응답자들 중 44%는 MICE 업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체 종사자들이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이유를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으로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 조사 결과 상으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응답한 조직들 중 36%의 조직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54%의 조직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업계 종사자들의 57% 역시 소속 조직으로부터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을 일절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은 설문 결과 업계 종사자들의 지속가능성 노력 실천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시행이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지적하며 교육훈련을 통해 공통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업계 지속가능성 강화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



[그림 4] MICE 업계의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훈련 현황 조사 결과

■ 지속가능한 조달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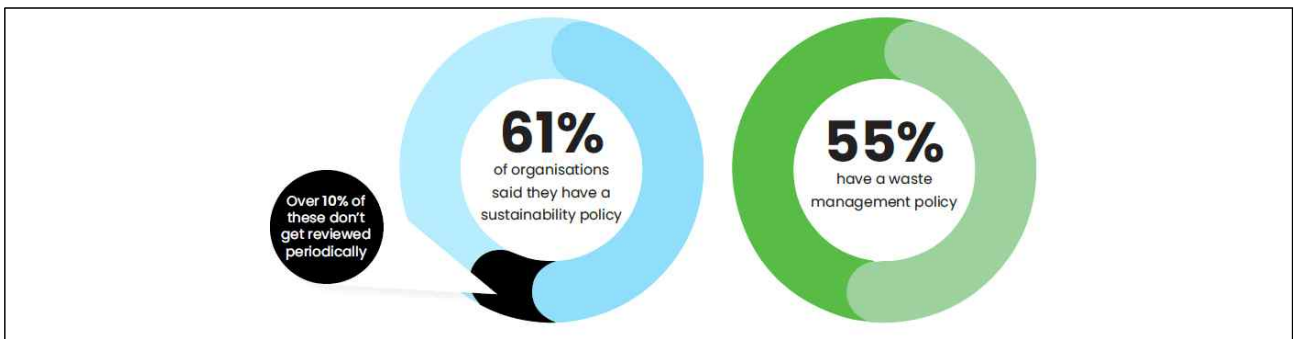
- MICE 업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행사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의 운영 현황을 특히 주의깊게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공급자들이 자니고 있는 공급체계(Supply Chain) 역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재 업계 운영 현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
- 실제로 설문 결과 조달(Procurement)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에 불과했으며, 메뉴를 선정할 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더 적었고, 심지어 기업 및 조직에서 협업·협력 등을 실시할 때 대상 업체의 친환경 인증 지속가능성 강화 활동을 고려하는 경우는 17% 수준에 불과하였음
- 전문가들은 이러한 업계 현황에 대하여 MICE 산업은 공급체계 상 메뉴 공급자, 전시 주최자, 부스 제작자, 케이터링, 전시 참가사 등 수많은 주체들이 얹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친환경 인증 등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공급자 및 사업자와의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소상공인 연계 공급체계 구성 등 다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였음



[그림 5] MICE 업계의 지속가능한 조달 관련 현황

■ 지속가능성 관련 사내 규정 현황

- 대다수의 MICE 종사자 및 업체들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내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 중인 조직은 전체의 61%에 그쳤으며, 해당 조직들 중 10% 이상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내 폐기물 처리 관련 지침을 운영 중인 조직은 전체 응답자의 55%를 차지하였음
- 전문가들은 각 조직들의 자원 및 예산 부족, 일부 조직의 느린 업계 변화 반영 속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폐기물 처리 관련 지침과 같이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되는 조치들은 조속히 장립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탄소배출량 저감 등과 관련한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MICE 산업계 전체가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공동대응하는 것이 좋은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음



[그림 6] MICE 업계의 지속가능성 지침 운영 현황

다. 향후 MICE 업계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1)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 조직 내부 의사결정 체계에 지속가능성 의견 반영

- 전문가들의 컨설팅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여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조직 내에 지속가능성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배치하거나 또는 기존 직원들 중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또한 기존 설문 결과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보였던 지속가능성 관련 내부 규정의 수립, 폐기물 처리 지침 등과 관련하여, 모든 조직에서 해당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및 트렌드에 발맞추어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체계 수립 및 현행화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조달 과정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업계 내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성 강화 조치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의 업계로서 공동대응하는 것, 탄소배출 저감 서약을 실시하는 것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2)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 활성화

■ 업계 내 모두가 지속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들은 현재 MICE 업계 내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이 모두 공통된 인식을 지니고 각자의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조직 내 전 부서 및 대부분 업무 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조직들은 각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지속가능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으며, 또한 각 조직별로 실시한 지속가능성 관련 우수사례를 타 조직과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조직들 간의 네트워킹은 물론 아이디어 공유,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임

3)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

■ 장기적인 효용을 위한 단기적 손실 감수

-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맞이하였던 MICE 업계가 급작스럽게 기존에 추진하고 있지 않던 지속가능성 관련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보다 더 많은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해당하는 손실이나 투자가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향후 업무 및 MICE 행사 개최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하거나 에너지 공급체계 및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제안했고,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공하는 뷔페 및 식단의 선택지를 줄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고 채식주의 기반의 옵션을 추가하는 방안, 행사 참석자들 중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이동 시 전기차량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이에게 무료 커피 또는 다과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외에도 행사 진행 시 협력을 진행하는 주최자 및 메뉴, 그 외 행사 과정에 관여하는 수많은 업종 및 업체들 역시 생분해성 자재 사용, 종이 사용 및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전자명찰 및 명함 사용,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식자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4) 지속가능성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성과관리 필요

- 전문가들은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MICE 업계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조치들을 일회성으로 운영하지 않고 향후 꾸준히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공급망 내 모든 참여자들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에 제정한 지속가능성 강화 내규 및 지침을 꾸준히 검토하여 업계 현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 등 지속가능성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KPI 등에도 해당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조직구성원 전체가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을 아끼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음



2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해외시장 동향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싱가포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ITB Asia 2022' 개최

- 싱가포르, 19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최대 관광·마이스(MICE) 비즈니스 전시회인 '제15회 ITB Asia 2022'를 개최
 - 'ITB Asia 2022'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행사, 항공사 및 국제 이벤트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여행업계 전문 B2B 무역 박람회 및 컨벤션임
- 'ITB Asia 2022'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다가 올해 3년 만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Go Big & Go Forward: Travel Industry on the Road to Recovery and Growth(회복과 성장을 향한 여행산업)'을 주제로 삼고 전 세계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 127개국 1,300여 명 가량의 바이어가 방문하였음
 - 또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중동의 수천 개의 회사가 참가, 목적지, 항공사 및 공항, 호텔 및 리조트, 테마 파크 및 명소, 인바운드 여행사, 인바운드 DMC, 크루즈 라인, 스파, 행사장, 기타 회의 시설, 여행 기술 회사를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의 전시업체가 이 행사에 참석함
- 한편 3일 동안 Knowledge Theatre, MICE Show Asia 및 Travel Tech Asia등의 컨퍼런스를 병행, 100개 이상의 세션에서 180명 이상의 연사가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하여 업계 내 지식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였음



[그림 7] 싱가포르 제15회 ITB Asia 2022 행사 포스터

■ 싱가포르: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3건 체결

- 싱가포르관광청(STB, Singapore Tourism Board), 싱가포르 풀러턴 호텔(The Fullerton Hotel Singapore)에서 진행된 아시아 전시컨벤션기획자 대표회의(Asia Convention & Exhibition Organizers Summit) 출범식에서 싱가포르 MICE 업계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3건의 체결식을 진행
- 이번에 체결한 파트너십 3건은 각각 글로벌 MICE 지속가능성 동맹(Global MICE Sustainability Alliance), 이탈리아 전시 그룹(Italian Exhibition Group, IEG), 이벤트 기획사인 코멕스포지움(Comexposium)과 체결하였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글로벌 MICE 지속가능성 동맹(Global MICE Sustainability Alliance)과의 협약은 세계 최대 무역 박람회 주최사인 싱가포르 관광청(STB), PICO World, Cityneon Holdings, Kingsman Exhibitions 및 싱가포르 컨벤션 기획·공급자 협회(SACEOS) 등이 참여하는 7자 협약으로 전시회의 낭비와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행사 운영 건수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전망
 - 이탈리아 전시 그룹(IEG)과 체결한 MOU는 3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이탈리아 기반 비즈니스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돕기 위해 2023년 말까지 싱가포르에 이탈리아 전시 그룹(IEG) 동남아시아 지역본부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벤트 기획사인 코멕스포지움(Comexposium)과의 파트너십은 아시아태평양 최대 국토 안보 행사인 밀리폴 아시아-태평양(Milipol Asia-Pacific) 및 2023년 4월 개최될 유명 아이웨어 및 라이프스타일 무역전인 실모 싱가포르(SILMO Singapore), 비넥스포 아시아(Vinexpo Asia) 등의 행사 개최를 위한 투자를 목표로 체결되었음
- 이번 파트너십 체결식 및 대표자 회의 출범식에서 싱가포르관광청(STB)은 글로벌 이벤트 기획자들에게 싱가포르가 이벤트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임과 MICE 산업의 국제적 발전을 위한 도약대라고 강조하며 '이번 파트너십으로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MICE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더 많은 행사를 개최하여 MICE 산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싱가포르: 예방접종 차별화 안전 관리 조치(VDS) 해제로 MICE산업 활성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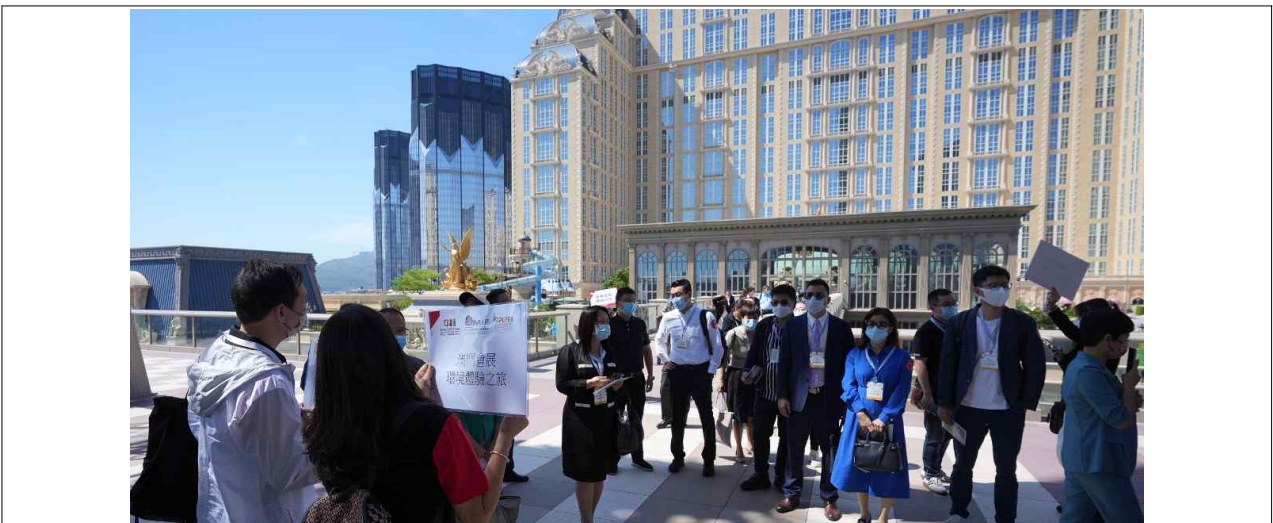
- 싱가포르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10월 10일부터 500명 이상의 이벤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차별화 안전관리 조치(Vaccination-differentiated Safe Management Measures, VDS)를 해제
- 이번 방역 조치 해제는 2022년 4월 단체 식사 제한 조치 해제, 8월 이벤트 참가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 등 각종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다시 한 번 싱가포르 내 MICE 산업 관련 방역 조치를 해제한 사례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MICE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전망
- 코로나19 이전 MICE 산업은 싱가포르 국내총생산의 0.8%를 차지했으며 약 3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19 이후 국경 폐쇄,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 등으로 가나긴 침체기에 빠졌으나 이번 예방접종 차별화 안전관리 조치로 인해 이벤트 모객 제약의 해소, 예방조치 준수를 위한 비용의 감소 등의 효과가 발생하여 행사 개최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자유로운 참가자 모집으로 인한 참가 규모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실제로 이번 방역 조치 해제 이전인 9월 30일~10월 2일 개최된 포뮬러원(Formula One) 그랑프리는 13년 만에 사상 최고 관중 수를 기록하고 4일간 30만 2,000명의 관중을 모객하는 등 싱가포르 MICE산업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규제 및 제한 해제를 통해서 향후 싱가포르 MICE산업 회복세는 더욱 빠른 속도로 기존의 모습을 되찾아갈 것으로 예상



[그림 8] 10월 1일 싱가포르 F1 그랑프리 현장

■ 마카오: 대형 국제행사 3종 동시 개최 및 MICE 산업 홍보활동 실시

- 마카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27회 마카오 국제무역투자박람회(The 27th Macao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Fair), 마카오 프랜차이즈 엑스포 2022(Macao Franchise Expo 2022), 포르투갈어권 국가 상품 및 서비스 전시회(2022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Products and Services Exhibition)를 동시 개최하였음
- 해당 행사 진행 기간 동안 마카오 무역투자진흥원(Invest Promotion Institute of Macao, IPIM)은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마카오의 MICE 산업 인프라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카오 MICE 홍보 세미나 및 시설환경 체험 투어를 실시하였음
 - 해당 이벤트에서 마카오 무역투자진흥원(IPIM)은 마카오 단체 관광을 재개할 4개 성과 1개 시(푸젠, 광둥, 장쑤, 저장, 상하이)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및 인센티브 등을 홍보하고 현지 MICE 인재와 자원 활용을 위해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함
 - 또한 마카오 MICE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제공을 위해 중국-포르투갈 국가 상업 및 무역 서비스 플랫폼 지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 사업장 탐방을 진행하고 마카오의 문화적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마카오의 관광매력을 선보임과 동시에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
- 향후 마카오 무역투자진흥원(IPIM)은 중소기업에 대한 MICE 방문객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축제 행사와 커뮤니티 가이드 투어를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마이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의 혜택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



[그림 9] 마카오 MICE 홍보 세미나 및 시설환경 투어 현장 사진

나. 미주 지역

■ 미국: IMEX America,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개최

- 미주 지역 최대의 MICE 전문 전시회인 ‘2022 IMEX America’가 2022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개최되었음
 - IMEX America는 세계 인센티브여행·미팅·이벤트 전문 전시회를 뜻하는 IMEX 행사 중 미주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전 세계 MICE 산업 관련 단체들과 업체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다수의 바이어들이 방문하며 각종 상담회, 설명회,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등이 이루어지는 업계 최대의 행사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IMEX America는 코로나19 이후 업계가 회복되는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큰 주목을 받았으며, 주최측에 따르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행사 기간 동안 약 4,339명의 바이어, 12,068명의 전시 참가자 등이 몰려 총 6만 2,000여 건 이상의 상담 및 설명회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뿐만 아니라 본행사가 시작하기 전인 10월 9일과 10일에는 영 리더스 컨퍼런스, 이벤트 디자인 서밋, 국제회의 관련 임원진들의 포럼, MPI (Meeting Professionals International) 전문가 강연, 협회리더십포럼 등 각종 지식공유 행사 및 EIC (Events Industry Council)의 글로벌 업계 시상식 등이 진행되었고, 본행사가 진행되는 11일부터 13일까지도 업계 내 세계적인 전문가 및 업체들이 각종 강연과 이벤트를 진행하였음
- 한편 IMEX America는 행사 운영 전 환경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배려하는 ‘People & Planet’ 서약을 실시하는 업체들에게 특별한 배지를 지급하고, 재생가능한 소재로 제작한 부스 제공, 지역사회 자선단체 기념품 기부, 자연친화적 식음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강화를 도모하였음



[그림 10] IMEX America 운영진의 환영 사진

다. 구주 지역

■ 이탈리아: ICMIF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 로마에서 개최

- 국제협동조합 및 상호보험연맹(ICMIF,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창립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
 - 국제협동조합 및 상호보험연맹(ICMIF)은 1922년 창립된 국제조합연맹보험위원회(ICA)를 뿌리로 삼아 발전해온 기관으로, 협동조합으로서 또는 상호보험으로서 고객을 위한 최선의 상품 제공을 위해 전 세계의 보험전문가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216개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각각의 회원기관들은 각각이 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보험기관 400여 곳을 담당하고, 이 보험기관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70개국에서 3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음
- 이번 ICMIF 창립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는 1922년 연맹이 처음 결성된 로마에서 창립 멤버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의 유니폴 금융그룹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방과 회복력 △협력을 위한 상호 간의 차이 이해 △탄소배출 제로화 △지속가능성 기틀 마련 등 코로나19에 따른 업계 회복 및 향후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 또한 ICMIF의 CEO와 회원사 대표들이 진행하는 지식허브(Knowledge Hub) 프로그램, 상호브랜드 구축 방안 강연, 인슈어테크(보험 분야에 적용되는 핀테크 기술) 등 업계 내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전 세계 45개 이상의 국가에서 회원사 및 협력사 대표 35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그림 11] 2022 ICMIF 창립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 포스터

■ 영국: 런던 MICE 업계, 지속적 투자 진행

- 런던컨벤션뷰로(London Convention Bureau), 런던 MICE 업계가 호텔·베뉴·문화지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기반 시설 투자 및 개선을 통해 팬데믹 이후 MICE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우선 호텔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간 52개의 새로운 호텔(7,632객실)이 신규 개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런던의 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2022년에만 17개의 호텔이 신규 개관, 비즈니스 관광객 및 이벤트 공급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또한 2022년 이후에도 총 439개의 호텔이 건립·개관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런던의 호텔 객실 수가 40,475개 더 늘어날 전망이다
- 또한 베뉴 측면에서는 2022년 가을께 이벤트 개최를 위한 유니크베뉴인 오산디바 런던(Oceandiva London)을 개장할 예정으로, 이는 템스 강에 설치된 가장 큰 수상 이벤트 베뉴이자 최초의 탄소중립 베뉴이며 3단으로 이루어진 갑판을 갖추고 있어 초대형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정박한 상태 또는 템스 강을 항해하는 상태 두 가지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이외에도 웨스트엔드(West End) 지역 중심부에 수백만 파운드를 투입하여 대형 베뉴인 '아우터넷 라이브'를 중심으로 미디어·음악 및 문화 지구인 아우터넷 런던(Outernet London)을 조성할 계획으로, 2,136m² 크기에 16K 고화질 해상도를 갖춘 초대형 스크린을 설치할 예정



[그림 12] 탄소중립 이벤트 리버크루즈 오산디바 런던(Oceandiva London) 조감도



3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국내시장 동향

3. 국내시장 동향

■ 서울: 한국조사협회, 제14차 APRC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한국조사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21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14차 아시아·태평양 조사협의회(Asia-Pacific Research Committee)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
 - APRC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9개국의 리서치 업계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업계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09년 설립된 단체로, 매년 컨퍼런스 등을 개최
- 이번 APRC 국제 컨퍼런스는 1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호주의 조사협회 대표 및 대표단 200여 명이 대면 형태로 참석하였고, 중국, 태국, 뉴질랜드의 대표는 대면 참석이 불가해 온라인으로 참가함에 따라 온·오프라인(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었음
- 이번 행사의 주제는 ‘Take the First Step into a New World(새로운 세상으로의 첫걸음을 떼다)’로, 세션 1의 소주제는 ‘뉴노멀 시대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세션 2의 소주제는 ‘생산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바라보는 마켓 트렌드와 대비 방안’, 세션 3의 소주제는 ‘리서치 접근법의 진화’를 주제로 각각 2-4회의 강연을 진행하였음
 - 세션 1에서는 칸타코리아 및 태국조사협회 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최신 행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 세션 2에서는 CJ, نيسان자동차, LG전자, 신세계푸드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서 팬데믹 이후의 소비행태를 예측하고 소비자인사이트를 발굴하여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발표, 기업들이 업계로부터 어떤 리서치와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라는지에 대하여 제시함
 - 세션 3에서는 한국리서치, 입소스코리아, 닐슨아이큐코리아 등 국내 조사업계에서 향후 팬데믹 시기 리서치업계가 어떠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음



[그림 13] 2022 제14차 APRC 국제 컨퍼런스 현장 사진

■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2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

- 경찰청-인천광역시, 2022 국제치안산업대전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였음
 - 국제치안산업대전은 동아시아 유일의 치안산업박람회이자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전시회로서, 2019년 10월 처음 개최된 이래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개최되었으며, 매년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지는 치안산업 관련 최고·최대 전시회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치안산업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스마트 치안 기술의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모토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통한 보안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폴리스 기술, 경찰의 첨단치안시스템, 과학수사기법, 관련기술 등을 소개하고 국제치안협력망 강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바이어 및 유통기업,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였음
 - 특히 이번 행사에는 폴란드,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2개국의 경찰대표단 및 장비국장급 인사 등이 방문하여 1대1 수출상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총 4회의 행사 동안 국내외 250여 기업과 2만 4,000여 명의 참관객들이 방문하였음
- 이번 행사는 △출입통제·보안 △사회안전·통합관제 △교통장비 및 시스템 △경찰개인장비 △범죄수사 및 감식장비 △경찰기동장비 및 드론 △경찰 ICT △사이버범죄예방 및 대응 등 8개 주제로 전시관을 꾸렸으며, 다양한 부대행사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였음
 - 부대행사 중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국제 CSI 컨퍼런스’로, 유전계보학의 대가로 불리우는 바바라 벤티 박사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DNA 핵을 채취하는 기술을 소개하였으며, UN 및 프랑스 등 각국 대테러 요원들이 참여하는 ‘제1회 국제대테러부대 세미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컨퍼런스’, 그 외 20여 개의 전문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었음



[그림 14] 국제치안산업대전 현장

■ 경기도: 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고양시, 역대 최대 ‘美 유사나헬스사이언스 기업회의’, 유치 성공

- 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도 고양CVB는 10월 11일, 역대 최대 규모 미국 기업 회의인 미국 ‘유사나아시아태평양 컨벤션(2023 USANA ASIA PACIFIC CONVENTION)’이 2023년 5월 국내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힘
 - ‘유사나(USANA) 아시아·태평양 컨벤션’은 글로벌 세포과학 전문기업 유사나헬스사이언스 소속 임직원 2만여 명(국내 5,000명·해외 1만 5,0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대형단체임
- 경기도와 고양시는 미국 ‘유사나(USANA) 아시아·태평양 컨벤션’ 행사 개최로 인한 경제효과가 생산유발효과 75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39억원, 소득유발효과 162억원,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상열 고양컨벤션뷰로 사무국장은 ‘유사나 컨벤션은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도 있어 다른 기업회의나 포상관광단에 비해 씹씀이가 훨씬 크다’고 설명함
 - 이러한 이유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서도 해마다 ‘유사나(USANA)’ 행사 유치에 관심을 가졌으며,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 유치를 위해 한국, 말레이시아 2개국이 유치의향서를 제출했고, 경합 끝에 한국 개최가 최종 결정됨
- 권종술 한국관광공사 MICE실장은 ‘역대 최대 규모 기업회의 국내 유치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MICE산업 생태계의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사나 아시아태평양 컨벤션에 이은 제2, 제3의 대형 기업회의, 포상관광단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직판·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그림 15] 2022 8월 미국 유사나헬스사이언스 창립 30주년 행사

■ 울산: 울산관광재단, '위드코로나 시대, 신생 MICE 도시 울산의 미래' 포럼 10월 28일 개최

- 울산관광재단은 10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유에코(UECO)에서 울산시·구·군 공무원 및 MICE 유관기관 관계자, 울산 MICE 얼라이언스를 대상으로 '2022 울산 MICE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함
- '위드코로나 시대, 신생 MICE 도시 울산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신생 MICE 도시 울산의 중장기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해 기획됨
 - 첫 기조 강연은 'MICE산업의 현황 및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MICE산업 환경변화, 국내 MICE산업의 현황 및 주요 이슈,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 지역 MICE 발전방안 및 제언 등을 발표하였음
 - 두 번째 기조 강연은 '전시산업의 추세와 울산 전시산업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세계 전시산업의 변화, 주요 전시산업 도시 분석 및 시사점, 울산시 및 유에코 현황 분석, 울산 전시산업 정책 방향을 제안함
 - 마지막 정책토론에서는 '울산 MICE마케팅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해 한국MICE관광학회 윤영혜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으로는 동의대학교 여호근 교수와 울산시 엄진열 사무관, 신라대학교 손창식 교수, 울산연구원 손수민 연구위원, GTN 김용철 대표, 엑스포럼 신현대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울산 MICE 발전을 위한 열띤 정책토론을 진행함



[그림 16] '위드코로나 시대, 신생 MICE 도시 울산의 미래' 울산 포럼

■ 울산: 한국전시주최자협회, 10월 20~21일 'KEOA CEO 포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서 개최

- 한국전시주최자협회는 울산에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전시산업 선진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2022 KEOA CEO 포럼'이 개최하였음
 - 한국전시주최자협회는 이번 전시산업 선진화를 위해 유사 전시회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전문위원회를 협회 내에 설립할 계획으로, 전시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당 경쟁을 줄이고 상생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의 자정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임
- 이번 포럼에선 울산의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화학공업 도시 브랜드와 인프라를 활용한 B2B 산업 전시회 육성, 수도권 주최자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제시됨
 - 황희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우수 인력 확보, 디지털 전환 촉진, 건전한 경쟁구도 확립, 전시회 고도화를 통한 도시 브랜드 제고 및 레거시 창출, 미래 지향적인 마이스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전시산업의 전략과 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전시회 및 주최자 간 상생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과도한 경쟁이 산업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전문위원회 설립은 그에 따른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 언급했으며, 이 회장은 이어 '업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출품기업 감소와 전시장 임대료, 부스 디자인 설치비 인상 압박 등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질적 성장을 위한 상생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음



[그림 17] 2022 KEOA CEO 포럼

■ 광주: 광주관광재단, MICE 얼라이언스 네트워킹 워크숍 개최

- 광주관광재단, 10월 18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광주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22 MICE 얼라이언스 네트워킹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 MICE 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
 - 광주관광재단이 2011년부터 구축해 온 광주 MICE 얼라이언스는 MICE 관련 지역 유관기관과 업계 간의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단체로, 현재 숙박, 여행사, 국제회의기획, MICE 지원, 유니크메뉴, 체험관광 등 총 6개 분과 57개사로 구성
- 이번 네트워킹 워크숍에는 GMA 회원사, 광주관광재단 및 업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원사들이 서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소개하고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MICE 산업 회복방안 및 트렌드 공유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음
- 또한 회원사 중 숙박 분과와 여행사 분과는 협의를 통해 여행-숙박 연계 숙박할인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여행사 분과와 체험관광 분과는 이색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장기적 비즈니스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화 방향성을 제시함
- 광주관광재단은 이번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MICE 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내 MICE 업계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회원사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광주 MICE 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동반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
- 한편 광주관광재단은 현재 광주 MICE 얼라이언스 확대를 위해 유니크메뉴 공모 사업을 진행 중으로, 10여개의 유니크메뉴를 발굴하고 해당 시설을 광주 MICE 얼라이언스의 유니크메뉴 분과의 신규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지원할 계획



[그림 18] 2022 광주 MICE 얼라이언스 네트워킹 워크숍 사진